

한국사회 청소년수련활동의 역사적 배경으로서 화랑도수련활동에 관한 고찰

조영승*

본 연구는 한국의 청소년 수련활동의 역사적 배경으로서 신라 화랑도의 수련활동 이념, 목표 그리고 수련활동 체계에 대한 분석이다. 화랑도수련활동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행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덕·체·지를 갖춘 올바른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덕목으로 화랑도는 효제충신, 오상육예, 세속오계를 배우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천을 통하여 중요한 신라인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도의를 갖고 닦아서 사회에 이마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하였으며(道義相磨), 가락을 통한 정서함양과 실제로 자연 속에서 신체를 단련하고 무술 연마를 행하는 활동(歌樂相悅, 山水遊娛)들을 하였다. 또한 동해안 명산대진, 경주 단석신 신선사, 경주 송화병 등 여러 가지의 암각화를 통해서 화랑도의 수련터전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스스로 교육하는 자발적인 청소년 교육기관이며 단체라고 할 수가 있다. 결국 신라인은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 자발적으로 화랑도 단체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화랑도를 통하여 신라의 청소년들은 스스로 교육을 배울 수 있으며, 덕성을 함양할 수 있었던 것이다.

1. 서 론

한국사회는 삼국시대에서부터 고구려의 경당이나 신라시대의 경주(新羅 郎徒)¹⁾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교육의

* 경기대학교 교수

주요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고구려의 경당(肩堂)²⁾은 5세기 전반에 설치된 한국 최초의 민간 청소년교육기관으로서, 고구려의 미혼자제들이 경서(經書)를 익히고 무예(武藝)를 연마하는 수련활동 무대였다.³⁾ 신라의 화랑도는 6세기 중엽에 이르러 국가적 제도로 설치된 청소년단체로서, 주로 명산대천(名山大川)의 자연을 수련터전으로 하여 문(文)·무(武)·예(藝)의 조화로운 수련거리를 3년 간에 갖고 닦는 수련활동을 전개하였다. 화랑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청소년수련활동의 전형적인 모델인 셈이다.

그런데 100여 년 뒤에 삼국이 통일되고 난 후, 특히 원성왕 4년(788)에 독서삼품과라는 과거제도가 생기면서 화랑도제도의 교육적

- 1) 화랑도(花郎徒)와 화랑도(花郎道)의 두 용어는 구별된다. 花郎道라는 용어는 일본인 鮎貝房之進이 1902년에 발표한 '화랑고(花郎攷)'에서 처음 사용한 이래 우리나라에서 花郎徒라는 청소년단체의 지도이념을 뜻하는 용어로 쓰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사료에 그런 뜻을 가진 풍류도(風流道) 또는 풍월도(風月道)라는 용어가 있으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김상현,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1999, pp 506-508 참조).
- 2) 경당(肩堂)은 국당(局堂)으로 표기해야 옳다는 주장이 있다(이원재, “‘肩堂’ 再考: ‘局堂’의 가능성에 대하여”, 연세교육연구 제12권 제1호 pp. 1-14참조). 필자도 같은 의견이지만 아직은 많은 사학자들의 연구서에 따라 경당으로 표기한다.
- 3) 舊唐書 卷190 上 列傳 149 上 東夷 高麗條(俗愛書籍 至於衙門肅義之家 各於衙衙造大屋 謂之肩堂 子弟未婚之前 晝夜於此讀書習射); 新唐書 卷220 列傳 145 東夷 高麗條(人喜學 至窮理肅家亦相矜勉 衙側悉構嚴屋 號局堂 子弟未婚者曹處 誦經習射); 元代 馬端臨, 文獻通考 下(其俗知文字善讀書 庶賤之家 各於衙路造大屋 謂之局堂 子弟晝夜誦書習射); 朝鮮代 安鼎福, 東史綱目 第2 下 壬申 6月 [麗人喜學 至窮理肅家亦相矜勉 衙側悉構嚴屋 號局堂 子弟未婚者曹處 誦經習射(新唐書補)]; 安鼎福, 東史綱目 第3 下, 己卯 春2月(人喜學 至窮理肅家亦相矜勉 衙側悉構嚴屋 號局堂 子弟未婚者曹處 誦經習射); 安鼎福, 東史綱目 第6 上, 丙辰(顯德三遣使高麗 俗知文字喜讀書 庶民之家 各於衙路營大屋 謂之局堂 子弟晝夜誦書習射); 朝鮮代 崔溥, 錦南先生漂海錄 卷2 戊申年 2月 18日 [稱國亦有學校否 臣對曰 國都有成均館又有宗學中學東學西學南學 州府郡縣皆有鄉校又鄉學堂又家家皆有局堂(燕行錄選集 下,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p. 39)]

기능이 약화·소멸되었다. 그 후 근세에 이르기까지 약 1,100여 년 동안 서당, 향교, 서원, 국학, 태학, 국자감, 성균관 등 공사(公私)의 교육기관이 우리 청소년들을 중국 경서학습과 과거시험에 치중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다가 1894년 일본 군부세력의 영향을 크게 받게된 정세 아래서, 우리 조정은 서양의 교육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지적 능력의 배양에 주안을 둘 수밖에 없는 학교교육제도만을 수용하고 도덕적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과 같은 부문은 외면하고 말았다.⁴⁾

그 결과 화랑도의 수련활동, 경서중심의 도덕원리교육,⁵⁾ 서양의 수련활동제도⁶⁾의 교육적 의미를 살리지 못한 채 학교가 모든 교육을 담당한다는 사고체계를 남게 되고, 이것이 임시제도와 결부되어 우리 청소년들은 성적 경쟁과 임시지옥에 빠져 전반적으로 나약해져 가는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

- 4) 이미 지적 한 바와 같이 일본군부세력이 동학혁명을 진압한 직후 우리 조정에 제시한 다섯 가지 권고 중 교육개혁이 들어 있었다. 그 내용은 당시 세계문명의 흐름과 국제정세에 비추어 불가피한 방향이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교육개혁방안은 이듬해인 1895년 민비를 중심으로 하는 수구파에 대적하는 개화파를 통하여 고종의 교육입국조서(教育立國詔書)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통교육 체계와 근대적 학교제도의 전면적 시행으로 이어졌다. 당시 교육입국조서는 德·體·智의 순으로 덕육을 강조하는 흔적이 뚜렷하다.(- - - 爾臣民은 忠君愛國하는 心性으로 爾德 爾體 爾智를 養하라 - - - <韓末近代法令資料集 1, pp. 180-181>),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知로 일관하는 학교교육만을 채택하였다는 사실과 일본군부세력이 수련활동과 같은 덕육체제를 허용할 수도 없었지 않았겠느냐는 추론 등에 관한 연구정리가 필요하다.
- 5) 과거제도와 연결되어 있던 전통교육 자체가 우주의 원리·삶의 가치·도덕의 개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가르침의 방법과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도덕실천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지육보다는 덕육이 보다 중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 6) 교육입국조서 반포 당시의 서양 청소년교육은 지육으로서의 학교교육과 덕육으로서의 수련활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미 기술한 바 있지만, 앞으로 보다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

로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청소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반성이 적극적인 정책수립으로 이어지기 시작하였다.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은 1990년부터 1년 여간 학자, 관련연구기관, 관계공무원, 언론이 참여하여 수립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학교 밖의 청소년 활동을 보장하고 사회 속의 청소년 성장여건을 조성하는 교육영역이 ‘청소년육성’이라는 개념으로 확립되게 된 것이다. 특히 청소년수련활동은 청소년육성의 핵심적 교육부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참조: 조영승, 1997; 1999). 이러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육성의 주요한 영역인 청소년수련활동의 역사적 배경으로서 화랑도수련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오늘의 청소년수련활동의 의미와 내용을 음미해보고자 한다.⁷⁾

지금까지 화랑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제 식민지배를 거치면서 삼국시대의 문헌사료가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주로 고려시대 이후의 문헌사료와 약간의 삼국시대 금석문(金石文)에 근거하여 논의해온 것이 사실이다.⁸⁾ 그런데 삼국사기에 간략한 내용만 인용되어 있던 신라

7) 여기서 청소년수련활동은 청소년기본법의 정책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정리한 줄거, 청소년학총론, 교육과학사, 1997, pp. 73-142; 청소년육성법론, 교육과학사, 1998, pp. 11-32;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2001, pp. 9-16과 이와 관련되는 논문들에서 발표한 개념과 내용을 전제로 한다.

8) 고려시대의 문헌사료로서 김부식의 삼국사기(三國史記), 일연의 삼국유사(三國遺事), 고려도경(高麗圖經, 1123), 각훈(覺訓)의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 1215), 고려 인종(仁宗, 재위 1123-1146) 때의 곽동순(郭東珣)의 팔관회선량하표(八關會仙郎賀表, 東文選 卷31에 收錄), 이인로(李仁老, 1152-1220)의 파한집(破閑集),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동국이상국후집(東國李相國後集), 최자(崔慈)의 보완집(補閑集, 1254), 안축(安軸, 1282-1348)의 삼일포기문(三日浦記文,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5 固城郡 山川條에 수록), 이곡(李穀, 1298-1351)의 동유기(東遊記, 東文選 71에 수록) 등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문헌들이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사(高麗史, 1454),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 1476), 동국통감(東國通鑑, 1484),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1486), 김종직(金宗直, 1431-1491)의 두유기행록(頭流記行錄, 續東文選 卷21에 收錄), 남곤(南諤, 1471-1527)의

인 김대문(金大問)의 화랑세기(花郎世紀)가 최근에 이르러 필사본으로 공개되어 지금까지 쓰여진 화랑도 관련 논의에 상당한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필사본 화랑세기를 중요한 사료로 인정하고 화랑도의 수련활동 분석에 반영하였다.⁹⁾

유백사정기(遊白沙汀記,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3 長湍縣 山川條에 收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의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 續東文選 卷21에 收錄), 서거정(徐居正, 1420-1488) 및 신용개(申用溉, 1463-1515)의 동문선(東文選), 이수광(李 睟光)의 지봉유설(芝峯類說 1614), 홍만종(洪萬宗, 1637-?)의 해동이적(海東異蹟),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동유기(東遊記, 農巖集 卷23에 收錄),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동경잡기(東京雜記, 1669), 이익(李 瀼, 1681-1763)의 성호사설(星湖僊說), 안정복의 동사강목(東史綱目, 1778), 어숙권(魚叔權)의 제관잡기(稹官雜記, 廣史 第6集 및 大東野乘에 收錄), 광사(廣史), 대동야승(大東野乘),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의 문헌사료가 화랑도의 수련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적고 있다. 삼국시대의 것으로 확인되는 금석문으로는 최근에 발견된 경주 단석산의 중악석굴(中嶽石窟), 천전리서석(川前里璽石), 임신서기석(壬申書記石) 등이 중요하고도 확실한 화랑도의 수련활동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 밖에 삼국지(三國志), 후한서(後漢書) 등 중국의 사료도 참고가 되어왔다.

- 9) 화랑세기를 필사한 사람은 박창화(朴昌和, 1889-1962)이며, 일제시대인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궁내성 도서관(圖書館)의 조선전고조사사무(朝鮮典故調査事務) 촉탁으로 근무하였다. 필사본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앞의 32쪽만 있고 뒷부분 몇 쪽이 없는지 알 수 없는 필사본이고, 다른 하나는 앞의 24쪽이 없는 뒷부분 162쪽 필사본이다. 32쪽 필사본은 1989년에, 162쪽 필사본은 1995년에 공개되었다. 이들은 540년에서 681년까지의 화랑 대표인 32명 풍월주의 전기다. 32쪽 앞부분 필사본은 서문에서 15세 풍월주 김유신조의 첫 쪽까지 기록하고 있고, 162쪽 뒷부분 필사본은 4세 풍월주 이화랑조부터 발문까지 적혀있다. 두 필사본의 겹치는 부분(4세 풍월주-15세 풍월주)으로 보아서 32쪽 앞부분 필사본은 162쪽 뒷부분 필사본을 거의 정확히 발췌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두 가지를 합하여 32명의 풍월주에 관한 내용을 읽을 수 있다. 다만 이 필사본 화랑세기 외 진위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자세한 것은 이종욱 역주해, 화랑세기, 소나무, 1999 및 이 책 pp. 392-394에 적고 있는 논문들을 참조할 것.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청소년교육의 한 주요 영역인 청소년수련활동의 역사적·실천적 의미를 사실(史實)에 근거하여 분석·정리함으로써 화랑도가 당시 주요한 청소년단체로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한국사회 청소년단체 기원적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내용을 주요하게 다룬다. 첫째, 화랑도수련활동의 이념으로서 화랑도의 근본사상과 이 사상을 현실세계에 실현하고자 했던 이상적 인간상은 무엇인지를 밝힌다. 둘째, 이러한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지를 규명한다. 이는 곧 화랑도수련활동의 목표에 대한 규명이 될 것이다. 셋째, 이러한 덕목을 내면화하기 위한 수련활동의 방법과 내용(수련거리)은 어떠하였으며, 수련활동의 무대는 어디였는지(수련터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수련활동 이념으로서 화랑도의 근본사상과 인간상

화랑도의 근본사상은 제천사상(祭天思想)과 풍류도로 정리될 수 있다. 즉, 한국사회는 상고시대부터 하늘에 제사지내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제천사상은 인간과 하늘 사이에 존재하는 태양·산천·나무·동물에 대한 숭배를 통하여 하늘에 의지하였으며, 일정한 의례와 가무로서 행사를 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집단적으로는 강한 결속력을 다졌던 것이다. 제정일치(祭政一致)의 상고시대 및 중고시대 초기 왕권의 권위도 바로 여기에서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천의식은 신라가 사료국의 작은 성읍국가에서 주변 지역을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정의 분리현상에 따라 제천의식을 주재하는 여성을 따로 두면서 변화되어 갔다. 그 후 제천의식 주재자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이 형성되어 가면서도 여전히 왕의 권위를 옹호하고 정신적 추앙의 대상으로 활동하였다.¹⁰⁾

한편 제천시상에 기반하는 개인적 경건과 집단적 결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라인들은 제천의식을 주관하고 이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바른 인간됨을 하늘에 맹세하고, 심신을 단련하며, 지식을 습득하고, 가무를 즐기며, 사회적 권위를 유지해 가는 사상체계를 형성하였다. 이것이 풍류도 또는 풍월도(風月道)이며, 이 사상체계의 내용은 삼국사기에 잘 설명되어 있다. 삼국사기의 풍류에 대한 설명이 화랑도를 제도화하는 것과 함께 기록하고 있으며, 삼국유사에서 “왕은 다시 나라를 진흥시키는 데에는 반드시 풍월도(風月道)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하였다”¹¹⁾라고 하는 데에서도 화랑도를 제도로 수용하기 이전에 풍월도가 먼저 있었고, 이것이 나라 진흥에 정신적 바탕이 됨으로 화랑제도의 근본사상으로 삼고자 천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필사본 화랑세기가 화랑도 대표 제1세부터 제32세까지의 전기를 기록하면서 이들을 풍월주(風月主)라고 하고 있는 것은 풍류도가 화랑의 근본사상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¹²⁾ 이러한 근본사상은 시대변화에 따라 보완·발전되면서 화랑제도가 없는 오늘날까지 전통사상으로 맥을 이어오고 있다.¹³⁾

10) 三國史記 卷第1 新羅本紀 第1 南解次次雄條에 보면 제2대 남해차차웅은 왕 자신이 사제(司祭)였으나 혁거세의 딸이며 친 누이동생인 아로(阿老)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다고 적고 있다.

11) 三國遺事 卷第3 塔像 第4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條.

12) 花郎世紀 10世 美生郎條의 풍류집(風流蝶), 三國遺事 卷第2 紀異 第2 孝昭王代 竹之郎條의 풍류황권(風流黃券) 등도 이를 알려주고 있다.

13) 풍류도라는 근본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기본적인 사상체계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전승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수련활동은 오늘날의 전통사상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도록 하는 목적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민족사상과 21세기 한민족 청소년육성”,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연구, 제7권 제1호, 1996(봄)에서 동학의 조화사상을 전통사상의 축적된 모습으로 보는 소고를 발표한 적이 있다. 화랑도의 근본사상과 동학의 사상을 하나의 사상적 맥락으로 파악하는 것을 부정하는 학자도 있으나 이를 포함하여 별도의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화랑도가 국가제도로 수용되기 전에 이미 그들은 풍류도를 참으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을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추구하였다.¹⁴⁾ 국가목적에 따라 화랑도가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6세기의 신라는 국가적 융성과 대외전쟁의 승리라는 민족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시대적 상황이어서, 화랑도가 지향하는 인간상도 종래의 민간적 지위에서 생각하던 그것보다는 보다 구체적 내용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주요 사료의 내용에 따라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풍류도의 멋을 가지는 사람이다. 풍류도는 선한 것(善)과 바른 것(義)의 궁극적 상태를 온 몸과 마음으로 추구하는 도(道)이다. 풍류도는 긴 역사에 걸쳐 형성된 우리 고유사상으로서 제사지내는 일(祭)과 백성 다스리는 일(政)이 통합되어 있던 상고시대 제천의식의 문화복합체적 극치상태가 그 기원이다. 둘째로, 용모가 단정하고 행실이 바른 사람이다. 삼국사기의 “아름다운 남자들을 가려 뽑아서 곱게 단장하여 화랑이라 불러 받들게 하니 도중이 운집하였다”¹⁵⁾고 한 기록을 비롯하여 많은 사료에서 신체적 조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이 많고, 중국의 사료에서도 분명하게 적고 있다. 셋째, 훌륭한 공인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필사본 화랑세기에는 “어진 재상과 충성스런 신하가 이로부터 선발되었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졸이 여기에서 나왔다. 화랑의 역사는 알지 않으면 안 된다”¹⁶⁾고 하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신라 화랑들은 풍류도의 멋을 알아 받

14) 화랑도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민간의 청소년단체이며, 이것이 신라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국가가 제도로 수용·발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나, 자발적 성격과 민간적 성격 그리고 국가제도화 이전 단계에서도 화랑이라는 호칭이 있었느냐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15)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37年條.

16) 花郎世紀 序文.

위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용모가 단정하고 행실이 바르며 훌륭한 공인으로 되는 것이 이상이었다.

3. 수련활동 목표로서 화랑도의 실천 덕목

신라 화랑들이 그들의 근본사상을 이어가면서 이상적 인간상에 접근하는 데에는 어떠한 덕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곧 화랑도의 수련활동 목표를 밝히는 동시에 화랑도수련활동의 방법이나 장소, 화랑도의 청소년단체적 성격과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규명하는 근원이 된다.

신라 화랑도의 실천 덕목은 효제충신, 오상육예 그리고 세속오계 등 세 가지로 요약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효제충신(孝悌忠信)이다. 부모를 섬기고(孝), 형제간에 우애로우며(悌), 나라에 충성하고(忠), 다른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는 것(信)이 화랑들의 기본적인 실천덕목이었다. 삼국사기에서 현묘한 도인 풍류를 설명하면서 “집에 들어와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아가서는 나라에 충성”¹⁷⁾을 다하는 것을 풍류도의 구체적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나, 삼국유사에서 화랑의 전신인 원화를 설치할 때 “이들을 효제충신(孝悌忠信)으로 교육”¹⁸⁾하려 하였다고 하면서 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것을 고쳐 착한 일을 하게 하고(悛惡更善), 웃사람을 공경하고 아래 사람을 유순하게 하니(上敬下順), 오상육예(五常六藝)·삼사육정(三師六正)이 널리 시행되었다.”고 적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둘째, 오상육예(五常六藝)의 덕목이다. 유학의 영향을 받은 덕목들인 오상육예(五常六藝)는 삼국유사에서 명시하기를 한서(漢書)의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다섯 가지 덕목¹⁹⁾과 주례(周

17)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37年條.

18) 三國遺事 卷第3 塔像 第4 彌勒仙花 未尺郎 眞慈師條.

禮)의 예·악·사·어·서·수(禮·樂·射·御·書·數)라는 여섯 가지 기예(技藝)²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학의 도덕적 덕목만이 아니라 예법, 음악, 궁술, 마술과 같은 기예를 덕목으로 삼았다는 것은 주목해야 한다.

셋째, 세속오계(世俗五戒)의 덕목이다. 신라는 법흥왕(514-540) 때 중앙집권 왕권국가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고 그 후 화랑도가 국가적 제도로 설치되었으며, 문무왕(661-681) 때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루었다. 원광법사가 세속오계를 정해 준 것은 이 두 임금의 중간기인 진평왕(579-632) 때의 600년에서 602년 사이 어느 날이었다. 신라는 삼국전쟁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사회전반에 걸쳐 유교, 불교의 교리를 흡수하여 새로운 체제를 확립하였고, 화랑의 새로운 실천덕목으로서 세속오계는 신라사의 전반의 정신적 지도이념이 되었다.

세속오계에 대하여는 삼국사기에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고, 삼국유사도 이를 인용하고 있어서 삼국사기의 내용을 아래에 적는 것으로 설명에 같음한다.²¹⁾

귀산(貴山)은 신라의 사랑부 사람으로 그 부친은 무은하간(武段阿

19) 漢書 董仲舒傳.

20) 周禮 地官大司徒條.

21) 三國史記 卷第45 列傳 第5 貴山條; 三國遺事 卷第4 圓光西學條. 世俗五戒는 당시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근본적 도덕률로서 손색이 없다. 귀산과 추항이 화랑이었는데, 세속오계가 화랑만의 계율로 제시된 것인가 아니면 신라인들이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시대정신이 원광법사에 의하여 정리된 것인가, 종전의 화랑도 도덕규범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느 정도 강한 호소력을 가졌으며 화랑들은 어떻게 수행하였는 지 등은 따로 연구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에서는 위 사료 내용 외에 귀산·추항 및 원광법사에 관한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平王條를 비롯한 다른 사료의 내용을 참조하고, 당시 신라의 시대상황과 원광법사의 활동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수련활동이 무엇을 지향하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모델이 될 것이다.

干)이다. 귀산은 어렸을 때 부락 사람 추항(籌項)과 벗이 되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들이 사군자(士君子)와 더불어 사귀기로 기약하고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지 아니하면 욕을 자초하는 결과를 면치 못할 것이니 어진 이의 곁에서 도(道)를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였다. 이때 원광법사가 수나라에 들어가 유학하고 돌아와 가실사(加悉寺)에 거처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으므로 귀산 등은 그 문하에 나아가 옷자락을 걷어잡고 아뢰되 '몽매한 속인이 아무런 지식이 없으니 원컨대 한 말씀을 내려 주시어 종신의 훈계를 삼도록 해주십시오' 하니 법사는 말하기를 '불계(佛戒)에 보살계가 있어 그 종류가 열 가지이다. 그대들이 남의 신하와 자식이 되었으니 능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세속의 오계가 있으니(今有世俗五戒) 첫째는 사군이충(事君以忠), 둘째는 사친이효(事親以孝), 셋째는 교우이신(交友以信), 넷째는 임전무퇴(臨戰無退), 다섯째는 살생유택(殺生有擇)이다. 그대들은 정순히 받고 실행하라.'

4. 화랑도수련활동의 체계

수련활동의 체계는 수련거리(프로그램)와 수련터전 및 청소년지도자를 기본요소로 한다. 여기서는 화랑도의 수련활동으로서의 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화랑도수련활동의 수련거리와 수련터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화랑도의 수련거리(프로그램)

화랑도는 풍류도의 멋을 알고 용모가 단정하며 행실이 바르고 훌륭한 공인으로서의 이상적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효제충신(孝悌忠信), 오상육예(五常六藝), 세속오계(世俗五戒)를 내면화하는 구체적인

수련거리가 있었을 것이다. 신라 때 작성된 선사(仙史)가 남아 있지 아니하고, 화랑의 일기장과 같은 사료도 없기 때문에 현장 수련거리(과목·일정·방법)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사료에서 기본형 수련거리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들은 서로 도의를 연마하고(相磨以道義), 서로 가락을 즐기며(相悅之歌樂), 산수를 찾아다니며 유람하면서(遊娛山水), 먼 곳이라도 가지 않은 데가 없었다(無遠不至)”²²⁾라고 기록하고 있는 사료의 내용은 화랑도수련활동의 세 가지 기본형 수련거리를 적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 기본형 수련거리는 각 화랑도 집단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시기와 수련터전에 맞게 현장 수련거리로 만들어져서 적용되었을 것이며, 여기에 참여한 화랑과 낭도들은 그들의 실천덕목을 내면화하는데 진력하였을 것이다. 이 기록에서 ‘서로(相)’ 연마하고 즐겼다고 하는 것은 화랑도가 자발적인 청소년단체이며 집단적 교육을 수행하였음을 말해준다.

첫째, 도의상마(道義相磨)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알려준 화랑도의 실천덕목 중에서 육예(六藝) 이외의 효제충신(孝悌忠信), 오상(五常), 세속오계(世俗五戒) 등은 하나같이 지속적인 도의연마(道義研磨)를 통하여 내면화가 가능한 수련지표들이다. 이 도의연마는 화랑세기에서도 서문에 다루고 있다.²³⁾ 도의연마의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하여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²⁴⁾은 세 가지 중요

22)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37年條.

23) 花郎世紀 序文의 ‘仙徒以道義相勉’.

24) 1940년 慶州郡 見谷面 金丈里 金藏臺에서 발견된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은 경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30센치미터 높이에 윗 부분의 폭이 12.5센치미터로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자연석이며, 뽕죽한 송곳으로 각문(刻文)한 듯한 글자의 행수는 5행으로 모두 74자이다.

발견된 곳이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화랑의 수련터전인 금장대이라는 점, 글의 내용이 화랑도의 사상적 성격을 가진 점 등으로 보아 화랑들의 맹서인 것은 거의 확실하나 그 연대에 관하여는 진흥왕 대의 임신

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첫째로, 화랑의 도의연마는 주로 유교의 경전(經典)으로 했음을 알 수 있고, 과목은 시경, 서경(상서), 예기, 춘추 등이다.²⁵⁾ 둘째로, 화랑도 수련활동의 기간은 3년이였다. 셋째로, 화랑도의 경서공부는 집단적으로도 했지만 개인이 스스로 학습하였다. 정성을 다하여 경서를 자습하고 생활에 실천하여 익힌 내용을 집단활동에서 토론하고 발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아진다. 넷째로, 화랑도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하늘에 맹세하는 사상적 기반 위에 경서를 익히고 실천하였다.

화랑세기·삼국사기·삼국유사에 수많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화랑과 낭도들이 부모를 받들고 나라에 충성하며 친구의 우애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불의에 대한 결연한 저항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도의연마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실천덕목을 몸에 익혔기 때문이다.

둘째, 가락상열(歌樂相悅)이다. 여기서 가락(歌樂)은 노래와 춤을 포함하며 이것은 가무(歌舞)와 같다. 상고시대부터 있었던 제천행사는 일정 의식과 가무(歌舞)가 주요 내용이었으며,²⁶⁾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헤아리고 공동체의 결속을 기원하며 개인의 경건함을 다지는 것이었다. 이 가락상열의 풍습은 제천사상에 담겨져 신라의 풍류도를 거쳐 전승되면서 하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적 요소는 변하였으나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화랑들이 가락을 익혀 경서를 함양하고 실천덕목을 내면화하였다는

년인 552년(진흥왕 13년)이나 진평왕 대의 임신년인 612년(진평왕34년) 중 어느 해이라고 보는 설이 유력하다.

25) 유교의 5대 경전은 주역(周易)·서경(書經)·시경(詩經)·춘추(春秋)·예기(禮記)인데, 서경은 옛 성왕(聖王)들의 정치기록이고, 시경은 고가(古歌)의 집록(輯錄)이며, 춘추는 역사서이며, 예기는 유학자들의 논설집이다.

26) 영고·동맹·무천·소도·嘉佛 등 우리의 상고시대 제천행사는 우리나라 사료뿐만 아니라 중국의 漢書 東夷傳에도 설명하면서 “연일 음식가 무했다”고 적고 있다.

것은 향가(鄕歌)와 관련하여서도 확인된다. 신라의 향가는 한자음을 빌려 지은 순수한 우리말 노래인데, 삼국유사에는 월명사(月明師)의 도솔가(兜率歌), 충담사(忠談師)의 안민가(安民歌) 등 14수의 가사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화랑이 지었거나 가사의 내용이 화랑의 사랑·우애·애국에 관련되는 것이 대부분이다.²⁷⁾ 가락상열은 다른 두 개의 기본형과 마찬가지로 도의상마나 산수유오 때 유기적으로 엮어 수련하였을 것이다.

셋째, 산수유오(山水遊娛)이다. 산수를 유오하는 것은 놀이가 아니라 도의상마하고 가락상열하면서, 다음 세 가지의 수련거리를 수행하였다. 첫째는 제천사상의 실천활동으로 하늘에 제사하고 산천을 숭배하면서 개인의 경건을 다지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며, 집단의 결속을 강화하였다. 둘째는 신체 단련활동으로 국토를 순례하면서 신체를 단련하고 단결력과 애국심을 키웠다.²⁸⁾ 셋째로는 무술연마활동이다. 화랑의 실천덕목 중에는 육예(禮·樂·射·御·書·數)가 있었고, 그 중에서 궁도(射)와 마술(御)은 산수유오 프로그램의 필수 무술과목이며, 그밖에 검술(劍術)·창술(槍術)·수박(手搏·태권도)·수렵(狩獵) 등이 주요한 수련과목이었다는 것은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다.²⁹⁾ 무술연마는 기술적 숙달과 함께 높은 도덕적 경지에 이르는 품

27) 三國史記 卷第44 列傳 第4 金仁問條에 ‘隸書射御鄉樂도 능숙하고 藝能도 熟達하였다’고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화랑들의 전통을 알 수 있다.

28) 三國遺事 卷第2 紀異 第2 景文大王條의 기록에서 金膺廉이 국선이 된 지 후부터 왕이 불러들이는 2년간 사방을 우유(優遊)한 국토순례는 신체단련뿐만 아니라 그로하여금 삼미행인(三美行人)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드디어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무관하지 않다.

29) 송병문 외, “신라화랑도의 무예활동에 대한 고찰”, 경원대학 논문집 제19집 2호, 1997, pp. 461-470 및 김성물, “신라화랑도의 체육사적 고찰”, 경남대학교 교육이론과 실천, 제31권 4호, 1993, pp. 265-275 등 참조; 東京雜記의 황창량 검무, 삼국사기의 김유신 단석산 검술, 삼국사기의 황산벌 전쟁 때 관창의 갑마단창(甲馬單槍) 등 수많은 화랑들의 사료상의 예에서 알 수 있다.

성을 길러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완성하고자 하는 수련거리였다.³⁰⁾

2) 화랑도의 수련터전

화랑도의 수련터전은 도의상마·가락상열·산수유오의 수련거리에 적합한 장소나 시설이었을 것이다. 화랑도의 수련활동은 수련거리가 정해지면 개인과 집단의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료에 근거하여 앞서 설명하였다. 개인 스스로 예·악·사·어·수·서(禮·樂·射·御·數·書)를 습득하기 위하여서는 주로 경내수련터전을 이용하였을 것인데, 사료에서는 김유신의 중악석굴과 인박산(咽薄山), 비형랑(鼻荊郎)의 경주 황천(荒川)언덕, 죽지랑(竹旨郎)의 낭도 득오(得烏)의 풍류황권 등록과 매일 수련하던 장소, 효종랑(孝宗郎)의 포석정(飽石亭)과 좀 멀리는 김유신의 골화천(骨火川), 미시랑(未尸郎)의 흥륜사 진자에 의한 미륵불 현신으로 나타나 보인 웅천(熊川), 귀산·추항의 가슬갑사(嘉瑟岬寺)에 관한 기록 정도이다.³¹⁾ 화랑도의 수련활동에 관련되는 대부분의 기록이 산수수련터전을 짐작케 하는 것이어서 여기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검토하고자 한다.³²⁾

30) 增補文獻備考 卷之191 選舉考入 科制入에서 '新羅時射藝取人'이라고 적고 있는 신라의 궁전법(弓箭法)은 궁도로서 인재를 선발할 정도로 무술의 도덕적 의미를 기렸다.

31) 三國史記 卷第41 列傳 第1 金庾信 上條(중악석굴과 인박산); 三國遺事 卷第1 紀異 第1 鼻荊郎條(황천 언덕); 三國遺事 卷第2 紀異 第2 孝昭王代 竹旨郎條(득오의 일일수련장); 三國遺事 卷第5 孝謙 第9 貧女養母條(효종랑의 포석정); 三國遺事 卷第1 紀異 第1 金庾信條(김유신의 골화천); 三國遺事 卷第3 塔像 第4 美尸郎條(미시랑의 웅천); 三國遺事 卷第4 意解 圓光西學條(귀산의 가슬갑사).

32) 화랑도의 근본사상이 제천사상, 조상숭배, 산천경배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그 수련터전의 구체적 장소는 나라의 제사행사의 장소와 상당한 관련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三國史記 卷第32 雜志 第1 祭祀

(1) 동해안 명산대천(名山大川)과 화랑도 수련터전

동유기(東遊記)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화랑의 동해안 유오지(遊娛地)에 대한 답사기행문이 나온다.³³⁾ 이에 따르면 강원도 통천(通川)의 총석정(叢石亭)과 사선봉(四仙峯) 그리고 금란굴(金蘭窟), 고성(高城)의 삼일포(三日浦)와 석감(石龕: 돌로만든 탑) 그리고 사선정(四仙亭), 간성(杆城)의 영랑호(永郎湖), 강릉(江陵)의 경포대(鏡浦臺)와 한송정(寒松亭), 평해(平海)의 월송정(越松亭) 등이 화랑 사선(四仙)의 유오지이다.³⁴⁾ 화랑(四仙)은 술랑(述郎)·남랑(南郎)·영랑(永郎)·안상(安詳 또는 安常)을 말하고, 사선봉은 이 네 사람의 화랑을 지칭하며, 영랑호는 화랑 영랑을 딴 이름이며, 삼일포는 이들이 들어가서 삼일동안 나오지 않았다는 데에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적고 있다.

현재는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을 뿐, 사료에 나오는 유물이나 문귀

條에 대사(大祀)는 삼산(三山)에서, 중사(中祀)는 오악(五岳)·사해(四海)·사독(四瀆)에서, 소사(小祀)는 23개의 산에서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들 산수(山水: 큰산·작은산·바다·큰강·작은강)가 그 수련터전이라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다음에 서술하는 바와 같이 화랑들이 찾았던 다른 기록이나 유적에 의하여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구태익, “신라 화랑도의 수련활동장소에 관한 기초연구”, 연암측산원에대하논문집 제17집, 1998, pp. 59-79 참조). 삼국사기는 이들을 총칭하여 명산대천(名山大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 33) 東遊記는 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명인의 시문을 편집한 것으로 정편과 속편으로 전체 154권 45책(印本)으로 되어 있다. 정편은 조선 성종 때 서거정이, 속편은 중종 때 신용개가 편찬하였다. 여기 인용한 글은 東文選 卷第71 東遊記條에 나오는 것으로 이 기행문은 고려말 문인인 이곡(李穀, 1341-1420)의 글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은 조선 성종 때 노사신에 의하여 東國輿地勝覽이 편찬되었는데, 중종 25년(1530)에 이행(李荇) 등이 증보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라 하여 지리·풍속을 적은 지리서이다.
- 34) 金蘭과 강원도의 북명, 명주 등에 관하여는 三國遺事에도 화랑들의 활동이 있는 것으로 적고 있다.

가 없지만, 모두가 산수가 절경인 곳이며, 삼국사기의 제사하는 산천과 대체로 합치되며, 삼국유사에 이들 몇 곳에 관련한 화랑들의 활동을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 주변이 화랑의 수련터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암각화(岩刻畵)가 있는 화랑도 수련터전

東시베리아 아무르강 유역의 사카치아리안(Sakachi-Alian) 암각화 문화(岩刻畵文化: 자연암석에 새긴 그림문화)가 동해안을 따라 낙동강 유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선사시대의 여러 신(神)을 상징하는 그림이 있어서 뒤에 신라의 제천사상으로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 그 주위는 경관이 매우 수려하며, 화랑들의 구체적 활동흔적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암각화가 있는 곳이 화랑도의 산수수련터전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첫째, 경남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慶南 蔚州郡 斗洞面 川前里) 암각화의 화랑도수련터전이다. 백운산(白雲山)에서 흐르는 대곡천(大谷川)이 가지산(加智山)에서 흐르는 본류(本流) 태화강(太和江)에 합류하는 이 지역은 깊고 아름다운 계곡이다. 이 대곡천의 거암벽(巨岩壁: 높이 2.7미터, 폭 9.5미터)에 각화(刻畵)가 있는데, 암석의 상단부는 선사시대 기법(쪼고 두드리 파는 수법)으로 새겨진 원문(圓紋), 동심원문(同心圓紋), 동심와문(同心渦紋: 소용돌이 같은 무늬)³⁵⁾, 동심원인면문(同心圓人面紋), 동물문, 식물문 등의 그림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천신·태양신·조상신 등을 상징하는 선사시대 것이다. 암석의 하단부는 신라시대 기법(예리한 칼 끝으로 긁는 수법)으로 새긴 선각화(線刻畵)와 한자로 된 각명(刻銘)이 있는데, 여기에 신라사회 풍속도와 화랑에 관한 기록이 있다. 특히 암각화의 제명(題名)에는 '戊年六月二

35) 1988년 제24회서울올림픽대회의 휘장(徽章, emblem)을 생각해 볼 수 있다.

日 永郎成業'라는 문귀가 있어 이곳은 화랑들의 수련터전임이 확인된다. 화랑들은 암각화가 있는 이곳을 수련터전으로 하여 선사시대 조상이 그려 섬기던 천신에 기도하고 도의상마, 가락상열하면서 인격을 도야하고 그 결과를 흔적으로 남겼다.

둘째, 경남 고령군 양전면(慶南 高靈郡 良田面) 알터 마을 암각화의 화랑도수련터전이다. 천전리 암각화의 경우와 같이 주위 경관이 아름답고 선사시대의 기법으로 새겨진 유사한 그림들로 되어 있어서, 확실한 흔적은 없으나 화랑의 유오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남 함안군 도항리(慶南 咸安郡 道項里) 지석묘(支石墓)의 암각화의 화랑도수련터전이다. 여기에도 천전리 계통의 암각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주위가 화랑도수련터전으로 여겨진다.

넷째, 경주 금장대(金藏臺) 암각화의 화랑수련터전이다. 이 암각화는 1994년에 동국대학교 학술조사단에 의하여 조사되었는데, 경주의 서천(西川)과 북천(北川)이 만나 심연대소(深淵大沼)를 이루는 곳이 금장대이고, 신라팔경의 하나로 꼽히는 절경지이다. 여기에 있는 암벽에 선사시대에 새겨진 인면(人面), 사람발자국, 동물발자국 등의 암각화가 그려져 있다. 인면 등은 조상신과 그를 통한 천신에 이르는 신앙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금장대에서 앞에서 기술한 바 있는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이 발견되어 이 일대가 화랑도수련터전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3) 미륵불(彌勒佛)이 있는 화랑도 수련터전³⁶⁾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화랑도의 근본사상인 풍류도는 신선적 기

36) 이은창, “신라 화랑유적과 화랑도사상”, 신라 화랑문화의 신연구, 한국향토사연구회 전국협의회, 1996 참조.

거처 전래된 도교, 유교, 불교의 교리를 쉽게 흡수·동화하여 독특한 전통사상체계를 형성하였다. 화랑들은 풍류도의 전통사상을 견지·계승하면서, 실제로 있어서 삼교(三敎)의 원리에 따라 수도하는 수련방법을 실천하였는데, 특히 불교의 경우에는 미륵불³⁷⁾을 깊은 신앙으로 삼았다는 것이 사료와 유적에 의하여 확인되고³⁸⁾, 미륵의 불상이나 흔적이 있는 곳은 화랑도수련터전으로 밝혀지고 있다.

첫째, 경주 단석산 신선사(斷石山 神仙寺)의 화랑도수련터전이다. 자연요새(自然要塞)를 이루는 단석산의 신선사에 관하여는 삼국사기·동경잡기·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사료의 종합적 해석과 현존 중악석굴(中嶽石窟)에 조각된 명(銘)과 상(像)에 의하여 이 자연석굴이 신선사이며, 김유신이 하늘에 기도하면서 한편 미륵신앙으로 수도한 화랑도수련터전임이 밝혀졌다.³⁹⁾

둘째, 경주 송화방(松花房)의 화랑도수련터전이다. 경주 송화산의

37) 불교의 미륵에 대하여는 미륵하생경(彌勒下生經)을 비롯하여 불교의 수많은 경전에 나온다. 또한 미륵에 관한 중요한 저술로서 유가사지론(100권)을 우리나라 흥륜사의 도륜이 주석한 유가사지론기(24권)가 있다.

미륵사상은 우주의 모든 것은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며, 사후의 극락세계를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지상에 이상사회를 건설하는데 두고 있어서, 당시 삼국통일을 앞두고 있었던 화랑들의 정신에 큰 영향을 주었다(김지전, “미륵사상과 화랑사상”, 신라화랑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참조).

38) 三國遺事 卷第3 塔像 第4 彌勒仙花條의 흥륜사 승려 眞慈, 彌勒像, 花郎, 彌勒仙花에 관한 기록, 三國史記 卷第41 列傳 第1 金庾信 上條의 김유신이 龍華香徒라고 불렸다는 기록 등 수많은 사례가 있다. 유의할 점은 통일신라에 이르면서 아미타불(阿彌陀佛) 신앙으로 이행되어 갔으며, 이것이 삼국의 백성을 아우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였다.

39) 三國史記 卷第41 列傳 第1 金庾信 上條; 東京雜記 古蹟條; 新增東國輿地勝覽 卷第21 慶州府 斷石山條; 中嶽石窟의 ‘山巖下創造伽藍 因靈虛 名神仙寺’라는 남쪽 암벽 銘과 북쪽 암벽 半伽思惟彌勒菩薩像 등(1969년 한국일보사 주관 新羅三山學術調査團에 의하여 조사).

동쪽 기슭에 건물터가 남아 있는 이 절은 삼국유사·동경잡기의 기록과 이 절에서 발굴되어 경주박물관에 있는 석조(石造)의 반가사유미륵보살상(半伽思惟彌勒菩薩像) 등으로 보아서 김유신 일가의 사찰이면서 수련터전임이 확실해졌다.⁴⁰⁾ 이 건물터는 앞서 기술한 금장대와 이웃하고 있는 산수가 수려한 절경지이어서 산수유오의 수련에 적합하다.

셋째, 삼화령(三花嶺) 수련터전이다. 경주 남산의 삼화령은 삼국유사의 기록과 경주박물관 소장 남산 삼화령 미륵세존(彌勒世尊)이라는 석조의 미륵삼존불상에 관한 연구 등에 의하여 화랑들이 미륵신앙으로 수련한 수련터전임이 밝혀졌다.⁴¹⁾

5. 결 론 : 화랑도의 청소년단체로서의 성격

지금까지 화랑도는 제천사상과 풍류도를 실현할 수 있는 문·무·예(文·武·藝)의 포괄적 실천덕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내면화하기 위하여 전국의 명산대천을 무대로 3년여간에 걸쳐 철저하게 수련하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청소년단체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화랑제도가 국가에서 수용하기 전에 이미 그 원류가 있었으나 그 명칭 등 체제가 어떠한지에 관하여는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였건 그것은 자발적

40) 三國遺事 卷第1 紀異 第1 金庾信條의 ‘松花滿洞府林 谷口架築爲庵 因名松花房’; 東京雜記 古蹟條(財買谷 金庾信宗女財買夫人死 - - - 因名松花房); 경주박물관 송화방 半伽思惟彌勒菩薩石像.

41) 三國遺事 卷第3 塔像 第4 生義寺石彌勒條의 ‘有石彌勒出 置於三花嶺上 善德王十三年 創寺而居 後名生義寺(- - - 忠談師每歲重三重九 烹茶獻供者 是此尊也’; 三國遺事 卷第2 紀異 第2 忠談師條의 ‘烹茶饗南山三花嶺彌勒世尊’; 三國遺事 卷第5 感通 第7 融天師·慧星歌·眞平王代條의 ‘第5 居烈郎 第6 實處郎(一作 突處郎) 第7 實同郎等 三花之徒’.

청소년단체였으며, 화랑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적 제도로 설치된 이후에도 그 자율성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귀산과 추항이 중국에서 막 귀국한 원광법사를 만나는 일과 그로부터 세속오제라는 실천덕목을 받아오는 일이 그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수행되었던 사실(史實)⁴²⁾이나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의 명문(銘文)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참여와 활동이 서약의 형식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화랑은 지명되는 것이 아니라 추대절차⁴³⁾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 등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풍류황권에 등록을 하고 국가에 이들을 지원하는 창구가 있었던 것과 같은 국가제도적 측면이 없을 수 없었으나, 수많은 개인적 수련활동과 화랑에게 무리가 운집하고 화랑을 받들었다는 사료의 기록들은 국가적 지원체제가 그 자율성을 잃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화랑도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은 화랑세기의 '도의상면(道義相勉)', 삼국사기의 '상마이도의(相磨以道義)', 상열이가락(相悅以歌樂), 유오산수(遊娛山水)', 삼국유사의 '교지이효제충신(教之以孝悌忠信)'이라는 기록은 이를 말해주며, 이미 서술한 화랑도의 수련거리와 수련터전에서 밝힌 것으로도 알 수 있다. 특히 화랑도(花郎徒)는 스스로 교육하는 자율적 교육기관이었다. 풍월주의 지도를 받는 하나의 화랑도 조직체는 계층체적 구조를 가지고 삼부(三部)에 배치되어 있는 화랑들에 의하여 각각 담당하는 해당 과목에 대한 자율적 교육이 수행되며, 교육방법은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실천덕목을 수련하는 세 가지 수련거리(도의상마·가락상열·산수유오)에 해당 과목을 지금의 커리큘럼처럼 배열하여 실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三國史記 卷第45 列傳 第5 貴山條, 三國遺事 卷第4 圓光西學條.

43) 三國史記 卷第44 列傳 第4 斯多含條의 "사람들이 화랑으로 받들기를 청하여 부득이 화랑이 되었는데 그 따르는 무리가 일천명이나 되었다(時人請奉爲花郎 不得已爲之 其徒無慮一千人)"라는 기록.

한편 화랑세기가 그 서문에서 “이에 어진 재상과 충성스런 신하가 이로부터 태어났고, 훌륭한 장군과 용감한 병졸이 이로부터 나왔다 (於是賢佐忠臣 從此以秀 良將勇卒)”라고 기록하고 있고, 삼국사기에서도 처음에 원화를 두면서 “그들의 행실을 보고 이를 등용하려 하였다.(以觀其行義 然後舉而用之)”라고 한 후 화랑으로 바꾸면서 위 화랑세기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이 기록으로도 국가가 화랑제도를 설치하면서 그 목적을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려는 데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동일한 사상적 기반 아래, 자발적으로 결합하여, 이상적 인간상을 구현할 실천덕목을 장기간 수련한 화랑(花郎)과 화랑도(花郎徒)는 단순한 교육기능이나 인재양성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고, 도덕적 모범을 보이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결정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역동적이며 협동적인 신라사회를 만들었다. 이는 일차적으로 사료에서 읽을 수 있는 화랑들의 수많은 활동에서 알 수 있다. 화랑도가 수련활동을 하러 가는 도중에 어려운 사람을 힘을 모아 도우니, 그 부모도 나라도 이에 따라 지원한 사례는 한 예이다.⁴⁴⁾ 또한 신라사회를 지속적으로 규율하는 골품제도가 왕족·귀족의 혈연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는데 비해서, 화랑도의 화랑들은 초혈연적 이념을 가지고 있었고, 더구나 낭도들은 평민들도 포함하는 조직이어서, 화랑도가 골품제도의 혈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왕권과 진골귀족 간의 갈등을 완화하며, 평민의 사회적 진출 통로로서의 역할도 하였다.⁴⁵⁾

결국 화랑도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행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덕·체·지를 갖춘 올바른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덕목으로 화

44) 三國遺事 卷第5 孝善 第9 貧女養母條.

45) 이기동, “신라사회와 화랑도의 역사적 전개”, 화랑문화와 신연구, 한국향토사연구 전국협의회 편, 1995, pp. 97-109참조.

랑도는 효제충신, 오상육예, 세속오계를 배웠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천을 통하여 중요한 신라인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도의를 간고 닦아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하였으며, 가락을 통한 정서함양과 실제로 자연 속에서 신체를 단련하고 무술 연마를 행하는 활동들을 하였다. 신라인은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 자발적으로 화랑도 단체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화랑도를 통하여 신라의 청소년들은 스스로 교육을 배울 수 있으며, 덕성을 함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련터전, 수련거리, 청소년지도사 그리고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동기부여 등 여러 가지의 구성요소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이 흥미롭게 수련활동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이념이 무엇을 지양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화랑도수련활동은 우리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처럼 다양한 가치체계가 공존하는 현실 속에서 화랑도수련활동은 현재 또는 미래 수련활동의 방향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태익(1998), 신라 화랑도의 수련활동장소에 관한 기초연구, 연암측산원에대학논문집 제17집.
- 국사편찬위원회 편(2000), 한국사(40)(45).
- 김상현(1999),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 김영우 외(1997), 최신한국교육사 연구, 교육과학사.
- 김중권 역(1988), 삼국사기, 명문당.
- 리선근(1974), 화랑도와 삼국통일,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박연수(1982), 임신서기석에 관한 고찰, 육사논문집 제23집.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1998), 한국교육사, 교육과학사.
- 손인수(1996), 신라 화랑도의 공간, 문음사.
- 신라문화선양회(1989), 화랑문화의 재조명, 서경문화사.
- 안호상(1979), 단군과 화랑의 역사와 철학, 사립원.
- 윤이흠 외(1995),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 윤천근(1992), 화랑이 갖는 사상사적 의미, 신라화랑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민수 역(1996), 삼국유사, 을류문화사.
- 이영조(1999), 신라의 기와 혼을 찾아서, 한국문원.
- 이원호 역(1995), 三品彰英 著, 신라화랑의 연구, 집문당.
- 이종욱(1999), 화랑세기, 소나무.
- 이종욱(2002), 신라의 역사 1, 김영사.
- 이종학(1995), 신라화랑군사사연구, 서라벌군사연구소.
- 조영승(1997), 청소년학총론, 교육과학사.
- 조영승(1998), 청소년육성법론, 교육과학사.
- 조영승(2001), 우리나라 청소년교육의 구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논문집 제45집 제1호, 경기대학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92), 신라화랑연구.
- 한국향토사연구 전국협의회 편(1995), 화랑문화의 신연구, 문덕사.
- 황수영 편저(1994), 한국금석유문, 일지사.

ABSTRACT

A study on the code of chivalry camp activity as historical
background of youth camp activity in Korea

Cho, Young-Seung*

This paper is about concept, goal, and structure of camp activity of Shilla chivalry as a historical background of youth camp activity in Korea. The code of Shilla chivalry camp activity is rooted in holding a ceremony for Heaven and practices learning through various programs for embodying the righteous human with virtue, body, and knowledge.

The goal of activity programs were to make valuable people for society. The programs are composed of various activities to build feeling through the melody and to train his body in nature.

The code of Shilla chivalry is an educational institute and organization of youth to study in spontaneously. Regardless of their status, all youth in Shilla could participate in the organization of the code of Shilla chivalry. By means of the code of Shilla chivalry, the youth of shilla could learn by themselves their moral character.

This study is the useful historical document of youth camp activity which is a critical factor in raising of youth as well as it suggests the way of youth camp activity in the near future.

* Professor, Kyonggi University